

하나님의 주권과 나는 리더다.

본문 신 32 : 34 - 52절

David HONG

1. 전체배경

오늘 본문은 32장의 모세의 노래의 중간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 32장의 모세의 노래를 기승전결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 기 : 반석이신 하나님과 우매 무지한 이스라엘 (1 - 6절)
2. 승 : 구원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과 이스라엘의 배신 (7 - 18)
3. 전 :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19 - 35)
4. 결 :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과 대적에 대한 심판 계획 (36 - 43)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전체 노래의 전과 결에 해당하며, 뒷 부분은 그에 따른 명령이다.

- 1) 하나님의 후회와 구원천명 : 36 - 39
- 2) 하나님의 심판 계획과 맹세 & 찬양 : 40 - 43
- 3)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는 권면 : 44 - 47절
- 4)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과 그 이유 : 48 - 52절

2. 관찰

1) 하나님의 후회와 구원 천명 : 36 - 39

여기서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갑자기라기 보다, 원수들의 심판의 때가 곧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실 때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백성’으로 불리운다. 비록 그들은 죄인이며, 심판을 피할 수도 없었고, 또한 지금 철저히 무력하게 되었다. 그들은 지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그때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행하시지만, 죄인을 향한 사랑을 거두시지 않는다. (36절)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37 - 38절) 즉 이스라엘이 절망의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결국 그들의 의지 하던 우상은 결코 그들을 도울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가짜들’과 다른 존재이심을 천명한다. (39절) 이 구절은 한나의 노래와 유사하다. 즉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낮게도 한다는 말은 하나님 만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며,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이다.

2) 하나님의 심판 계획과 찬양 : 40 - 43

이제 하나님의 맹세가 나타난다. (40절) 하나님은 자신의 맹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맹세하신다. 이미 전쟁 준비는 끝났다. (41절)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쫓아가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이다. 원수들은 ‘화살’과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42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으로 이 ‘모세의 노래’는 마무리가 된다. (43절)

3) 말씀은 빈말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 44 - 47절

❶ 말씀은 단지 빈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명이다. : 47절

먼저 47절의 ‘헛된일’은 직역하면 ‘공허한 말’이다. 그러므로 새번역 등, 기타 한글버전은 이것을 빈말이라고 번역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없고 의미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다.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즉 말씀에 순종함이 오늘 나의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킬 만큼,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모세의 노래와 연관성이 있다. 모세는 하나님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묘사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오늘날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생명의 말씀’인 셈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각오와 태도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오늘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적용 Tip

오늘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킬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말씀이 내 삶에 능력이 없는 것은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빈말’ 수준으로 받느냐? 아니면, 정말로 ‘생명’의 수준으로 받는가?에 달려 있다. 이것은 신약의 씨뿌리는 자의 비유와 동일하다. 그 말씀이 온전한 마음의 밭에 뿌려질 때, 오늘도 우리의 삶에 30,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법이다. 오늘 내 삶에 이런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오늘 내가 전심으로 순종할 말씀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순종하자.

❷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쳐야 한다. : 46절

46절을 회브리 원어로 직역하면 ‘너는 너희 자녀들에게.... 주의 깊게 행하라고 명령하라’ 이다. 즉 신앙을 자신의 세대에서 지킬 뿐만 아니라, 전수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음을 밝힌 것이다. 즉 주의깊게, 신중하게하라는 의미가 덧붙여져서, 하나라도 빼먹지 말고 꼭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4) 리더십의 연대책임 - 리더와 공동체는 하나이다. : 48 - 52절

이제 48절에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 나온다. 이는 민 20 : 7 - 23절의 성취이다. 하나님의 명령인 즉, ‘느보산 (민 33 : 47)에 올라가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단 서쪽 땅을 바라보라’는 말씀이다. (48 - 49절) 이 느보산은 날씨가 좋을 때에는 요단 서쪽 땅 거의 대부분이 보인다고 한다.

또한, 50절에 표현은 특이하다. 직역하면, 산에 올라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라, 그리고 이 산에서 죽어라. 그리고 네 백성과 합쳐져라’ 라는 뜻이다. 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 1 세대의 지도자로서 광야에서 죽은 1 세대들과 운명을 같이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이것이 모세가 받은 마지막 명령이다.

이 명령의 이유가 이제 51 - 52절에 나온다. 여기에서 이의를 통하여 이유 2가지가 언급되는데, ❶ 하나는 불성실한 행동 때문이며, ❷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뜻은 ‘너희가 나에게 믿음을 갖고 행동하지 않았다’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의 주어가 ‘너’가 아니라 ‘너희’이다. 이는 단순히 모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 1 세대의 죄를 모세라는 대표에게도 묻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개인적인 범죄 때문에 새로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1 세대들의 대표 리더십으로써, 모세의 죽음은 1 세대의 완전한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2 세대가 출범하는 -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는 -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쉽게 비유하면, 내각의 한 장관의 부패와 여러 가지 문제를 결국, 내각의 수장인 총리가 책임을 지고 내각 총 사퇴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모세는 1 세대의 리더십의 표상이자, 대표였기에, 1 세대를 벌하면서, 그의 총 책임자인 모세에게만 책임을 면제해 줄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죄를 ‘복수형인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불신의 죄,’에 대한 마지막 ‘징벌’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이것은 앞에서 ‘아론’을 언급한 것과도 연관이 있다. 즉 50절의 네 형 아론 - 역시 동일한 1 세대들의 대표적 지도자 - 도 책임을 물어 죽었던 것처럼, 이제 1 세대의 마지막 리더이자, 총 책임자인 모세의 죽음을 통해 광야 40년간의 모든 방황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리더십과 공동체의 운명은 함께 같다고 보겠으며, 리더십이 가지는 책임감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다. 리더십의 첫 번째 요건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주인의식’과 ‘바로 책임감’이다.

모세는 앞서 공동체가 범죄했을 때,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더라도 이 공동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즉 그 스스로가 공동체와 자신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섭섭하지 않았고,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은 그만큼 리더십에게는 많은 권한 부여도 있지만 동일하게 책임감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를 책임지려는 리더의 모습에 우리는 당연히 그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이다.

※ 적용 Tip

오늘날 시대를 소위 '개인주의'시대라고 한다. 남이야 어쩌되었던 간에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리더는 그렇지 않다. 리더는 이 공동체와 자신의 운명이 함께 간다고 생각할 만큼,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 있고 공동체에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오늘 공동체의 대표로써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는 하나님도 역시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 나는 과연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한다.

3. 해석 & 적용

1)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희망

여러번 간구하고 계속 기도해 보았는데도 아직도 무소식인 기도가 있는가? 때로는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은 응답하시 않으시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이실 때가 있는가? 때로 우리는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 때문에 놀라기도 하지만,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놀라기도 한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경륜이다. 즉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거의 포기 단계에 이르렀을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응답하시는 경우가 종종있다. 그것은 그 일을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에게 절망의 때가 곧 희망을 때로 바뀔을 알리기 위함이기도 하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때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을 절망을 했다. 그러나 그 절망을 깨달음으로 이어졌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붙잡았던 우상들이 다 쓸모없는 돌과 나무들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것은 그 마지막까지 가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절망까지 몰아가셨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희망의 시작인 셈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종종 우리들에게 인내의 기도를 요구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란 종종 우리들에게 숨겨졌기 때문이다. 최근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제목이 있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끝까지 인내로 기도해 보자. 또한, 나의 삶에 절망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가? 그것은 위대한 깨달음이 된다. 아무튼 하나님의 때는 인간으로써는 알 방법이 없다. 우리는 그 동안 때로는 인내의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고, 절망 가운데서 진정한 내 삶이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깨닫음과 희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고 인내로 기도를 해야 한다. 또한, 지금 내 삶의 절망이나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내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아무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면, 우리들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